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의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vian Maier's self portraits photographic work

김진수*, 양종훈**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
(육군본부 정훈과장)*,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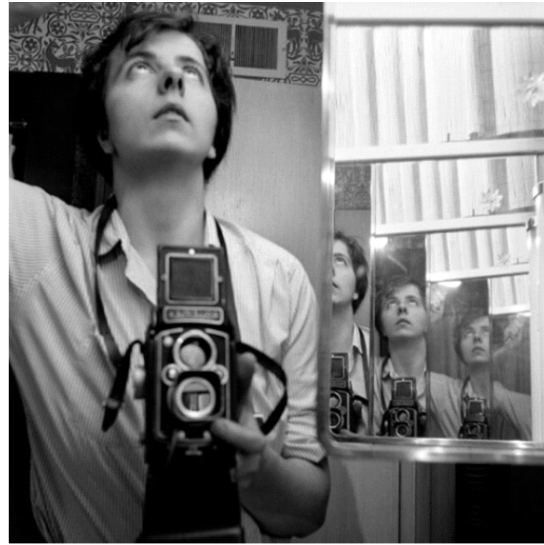
Kim Jinsu*, Yang Jonghoon**

Doctorate course in Digital Image, Sangmyung
Univ's Graduate School(Chief of Troop information
& education cell ROK Army Headquarters)*,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1. 작품 이미지



1955 - Anaheim, California¹⁾



1956 - Chicago area²⁾

2. 작가의 일생이 담긴 작품들

비비안 마이어(Vivian Maier)의 셀프 포트레이트(self portraits)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방형의 프레임인 폴라이 플렉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다. 위 두 작품 모두 한 곳을 응시하는 그녀의 시선이 눈에 띈다. 존 말루프(John Maloof)가 편집한 「비비안 마이어; 셀프 포트레이트」에 88점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중 자신의 그림자를 찍은 사진을 제외하고 거울이나 쇼윈도우에 비친 자신을 찍은 사진이 59점이다. 이 중 61%인

36점에 비비안 마이어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다. 작가의 사진에는 작가의 일생이 담겨있다.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 포트레이트에서도 그녀의 일생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그녀는 1926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내고 1951년 뉴욕으로 돌아갔다. 1956년 시카고로 본거지를 옮겨 2009년 83세로 숨질 때까지 살았다. 남의 집에서 평생을 보모로 살았다. 이제는 성인이 된 마이어가 돌보았던 아이들에 따르면 그녀는 교양 있고 열린 사고의 소유자로 관대하면서도 무뚝뚝했다고 한다.³⁾

1) John Maloof 외 1명, *Vivian Maier: self portrait*, 월북, p.15, 2015.

2) 앞의 책, p.53.

3) 작가의 생애와 관련한 사항은 John Maloof 감독주연의 영화 'Finding Vivian Maier'(2013)를 주로 참조하였음.

그녀는 생전에 찍은 15만장에 달하는 자신의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기만 하고 현상하지 않은 필름을 쌓아두기만 했다. 그녀의 직업적 특성상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가능하다. 그녀의 삶을 되돌아 볼 때 공개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추억을 혼자만이 간직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혼자만의 세계를 갈구하던 작가로서 자신의 추억을 누구와도 나누기 싫었을 것이다. 자신의 방문을 굳게 잠근 것처럼 사진 또한 혼자만의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현상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사진을 찍을 때 보았던 카메라 앵글 속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진들이다.

3. 작품 평론: 비비안 마이어의 메시지

비비안 마이어는 늘 카메라를 목걸이로 삼아 사진을 찍었다. 고단하고 외로운 일상을 보내는 그녀에게 사진 찍기는 완전한 그녀만의 시간이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힘든 일상을 벗어나 자신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진찍기였을 것이다. 그녀는 일상적인 거리의 모습, 어린 아이들의 모습, 시카고 도시의 어두운 면, 사회 변화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많이 담았다. 자신의 모습을 찍는데도 각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그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쇼윈도에 비친 모습, 세상의 사물이나 자연 속에 드리워진 본인의 그림자 등을 많이 촬영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궁금해 했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가졌다. 그 관심을 해소하는 창구가 거리의 쇼 윈도우였고 거울이었고 자신의 그림자였다. 스스로의 모습을 찍으면서 카메라 앵글을 통해 자신을 봐 온 것이다.

위의 두 셀프 포트레이트 속의 마이어는 세상을 향해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표정에 치켜든 눈동자. 그녀의 시선은 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자신의 사진을 찍는 순간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다. 그녀가 바라본 앵글 속 세상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다. 일상의 피로를 모두 날려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특히 왼쪽 사진(1955)은 누군가에게 거울을 잡아주게 하여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그녀는 폐쇄적 삶을 살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른쪽 사진(1956)의 마이어는 마주보고 있는 거울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명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그녀는 사진찍기를 통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겨라'. 그 누구의 이목에도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이어의 첫 번째 메시지이다.

그녀가 세상에 남긴 또 하나의 메시지는 '누구나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전문적인 사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스스로도 전문 포토그래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겨서 했을 뿐이다.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녀는 사진가였다. 마이어는 '일상에서 마음이 끌리는 장면부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찍기 시작하면 누구나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장비는 이를 더욱 현실감 있게 해주고 있다. 항상 모바일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는 우리는 이미 비비안 마이어처럼 사진가가 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마이어는 말년에 직업이 없고 가족도 없이 궁핍한 생활을 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이자 세계적인 유산이 된 필름 등 모든 것이 경매 시장에서 존 말루프에게 겨우 380달러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궁핍함이 오히려 유명한 작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작품을 공개하기를 꺼려했던 그녀가 운택한 생활을 했다면 그녀의 작품들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 다.